

전북형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도, 최종보고회 갖고 거래시스템 시연 등 진행... 공유자원DB·공유거점공간 확충 등 활성화 집중

전북도에 '미움은 더하고, 가치는 나누는 공유경제'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도는 16일 지역 내 유희자원의 사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공유자원을 등록한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거래시스템, 공유자원DB, 공유거점공간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는 내년 2월에 행정안전부의 공유누리에 등록된 전북도 공공자원DB와 공유거점공간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는 내년 2월에 행정안전부의 공유누리에 등록된 전북도 공공자원DB와 공유거점공간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유물품을 맡겨두고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인 공유거점공간 10개소를 마련했다.

지정된 공유거점공간은 전주(스페이스워크, 학산복지관, 사용자공유공간 PlanC), 군산(군산시공공활성화재단

가능토록 했으며, 자원거래 시 공유경제 가치실현을 위해 포인트와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이날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눌 자원이 풍부해야 하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전북도는 현재까지 지역별·유형별 자원을 조사해 물건 48건, 공간 175건, 재능·지식 145건 등 총 368건의 자원을 플랫폼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유물품을 맡겨두고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인 공유거점공간 10개소를 마련했다.

지정된 공유거점공간은 전주(스페이스워크, 학산복지관, 사용자공유공간 PlanC), 군산(군산시공공활성화재단

르네상스사업자, 군산시 청년들), 완주(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경천애인농촌사랑학교), 무주(반딧불 북카페), 임실(임실치즈마을), 부안(이레노원) 등이다.

도와 시·군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첫발을 떤 만큼, 앞으로 공유자원DB와 공유거점공간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는 내년 2월에 행정안전부의 공유누리에 등록된 전북도 공공자원DB와 공유거점공간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와 별개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유문화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도는 내년에 공유경제 학습동아리

(10개)와 공유실험실(3개) 자원을 통해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유문화 조성, 공유경제 사업화모델 지원 등 공유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공공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가능 자원을 매칭해 주는 공유경제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유희자원의 효과적인 이용과 더불어 전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 공유경제 플랫폼인 '가치아이'는 시범 테스트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통과... 내년 12월 말까지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관련기사 7면)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팬데믹 속에서 침체된 군산 경제를 살릴 재도약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 2021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됐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지난 2018년 4월 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연장의 연장을 하며, 올해 2번째로

연장돼 오는 12월 말 지정기간 만료를 코앞에 앞둔 상황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1년간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논리 개발 등에 힘을 쏟았다.

도와 군산시는 (주)명성이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차 생산을 추진 중이나 본격적인 생산케도에 들어서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며, 조선·자동차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채 OCI 및 타타대우 대규모 구조조정 등 지역 주요 제조업체들의 경영위기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용노동부를 설득해왔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군산시의 막대한 실업이 트릴 전망이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연말 3대 약속

25개 민간·문화·종교분야 공동성명서 발표

전북도에서 활동 중인 새마을회(회장 정준모)를 비롯한 민간·문화·종교 25개 단체는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안전한 전복을 위한 민간·문화·종교단체가 솔선수범하는 연말 3대 약속' 실천을 위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25개 민간·문화·종교분야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 앞서, 전북도 새마을회와 전반기독교총연합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마스크 2만매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전북지부, 전북도 이통장연합회, 해병대전우회전북연합회,

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전북지부 등 25개 단체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한 지역사회상품권 2,300여만원을 구매하고, 복지시설에 마스크 1만 5,000매 등 방역물품 기부 등 따뜻한 정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25개 민간·문화·종교단체는 35만9,000여명 회원들과 더불어, 나부터, 우리부터, 연말연시 모임·행사 취소, 따뜻한 거리두기, 마스크 생활화에 적극 앞장서 안전한 전복을 만들기 위한 3대 약속 '지금부터,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을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전북도새마을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민간, 문화, 종교 25개 단체는 1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특히, 도내 18만여명의 회원과 함께 도민에게 3대 실천을 약속한 전북도새마을회 정준모 회장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찾는 그날까지 도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자"며 동참을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한우 육성 종합계획 수립

도, 2021~2025년까지 총 29개 사업에 3000억원 투입

전북도가 명품 한우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16일 농축산물 시장개방, 사육육수 급증 등 대내외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전북 한우 육성을 위한 '전북한우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9개 사업에 약 3,000억원을 투입,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차별화된 '전북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한우개량 기반 강화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한우개량 기반 강화' (3종, 271억원)로 혈연기반 등록사업 및 가축시장 거래 소의 부모 소 일차 검사 등의 무화를 위해 약 1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아비소와 어미소의 동시 개량을 위한 좋은 암소 선발·관리와 유전체 검사 및 특화된 가축시장 운영으로 전북 한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100억원을 투입한다.

두번째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4종, 1,750억원)을 위해 유전능력평가 분석 사업으로 저능력 암소를 선발하며, 선발된 암소를 고집 소로 육성, 안정적 사육육수를 유지하기 위해 31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력과 및 재래식 축사 운영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 축사 확대' 및 '한우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57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을 향상으로 청정전복 이미지를 높이고 인수공통전염병(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정기검진을 통해 공중보건 향상 등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847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환경규제 강화 및 퇴비 부족도 제도 시행에 대응해 분뇨의 적정처리, 축산환경 개선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308억원을 투자한다.

끝으로 '한우 경쟁력 강화' (3종, 917억원)는 조사료생산 면적 확대와 품질 고급화로 사육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위해 종자, 퇴비, 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에 79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광역브랜드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고급육 생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마케팅 및 소비촉진 행사비 지원과 모든 소의 개체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약 63억원을 지원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 "전북도가 국내 한우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품질 고급화 전략으로 '전북한우'를 명품한우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관리 '우수' 도, 간판개선 중앙 공모사업 4년 연속 최다 선정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실시한 '2020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관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도는 올해 코로나19로 교육 시행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전북 인재개발원에서 자체 교육을 4회 실시, 도와 시·군 재난부서 공무원 278명이 차질없이 교육을 이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안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비대면 교육을 통해 124명이 이수하는 등 최근 3년간(2018~2020년) 재난안전분야 교육의무 대상 전원이 이수하

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전문교육 이수율' 평가항목에서도 '우수등급'을 받아 올해 재난관리평가에서 전북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현재 코로나19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비정형화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라는 때보다 중요한 만큼 재난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16일 행정안전부의 '2021년 간판개선 중앙 공모사업'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사업에 전국 37개 시·군·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서류와 주민들의 영상발표 평가를 통해 전주시와 익산시, 무주군이 최종 선정됐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6억8,000만원을 포함해 13억 원을 투입, 총연장 2.7km 구간의 291개 업소 간판을 정비할 예정이다.

'전주시 서부시장 간판개선사업' 대상지는 410m 구간 84개 업소, '익산시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현영

스피치·건강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편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한국스피치·음성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연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전주매일 부사장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